

사천~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9. 8. 10
- 나. 제출자 : 이복년 의원, 최정경 의원, 강득진 의원, 최동식 의원
- 다. 회부일자 : '99. 8. 10(의안 제40호)
- 라. 상정일자 : 제37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99.8.12상정)

2. 제안이유

- 사천~서울간 항공로의 직선노선은 300Km에 불과하지만 광주로 우회하는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책정, 왕복 2만원의 추가 부담을 양대 항공사가 전적으로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함.
- 서부경남 유일의 항공교통거점인 사천공항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불모로 항공사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
- 즉각적인 직항로 개설의 어려움을 일면 모르는 바 아니나,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양대 항공사는 항로 단축에 힘써야 할 것임.
- 그동안 수차 관계 기관에서 항공 요금 인하 건의안을 내었으나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을 실망시켜 왔으므로, 9월부터의 요금 조정시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개발에서 소외되어 의기 소침해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있어야 함. 따라서, 지역민들의 뜻을 담은 항공요금 인하 촉구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촉구안 전문과 같음”

4.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가. 동 촉구안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서부경남인이 불평등한 대우에 반발하는 의사표시로

나. 당초 언론기관과 진주시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사천~서울간 직항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다. 이목년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군의 훈련비행 제한과 군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와의 공중 충돌 가능성 때문에 당장의 실현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라. 따라서 차선책으로 항공요금 인하를 통해서라도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받고자 하는 것인데

마. 이 촉구안만 제출하였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부경남 및 동부전남 지역의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바. 따라서 직항로 개설과 항공료 인하 운동의 시발이 되는 동 촉구안의 채택은 우리 시 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본회의 부의하기로 함)